



광산구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 10명 위촉... 광산구는 9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다양한 생활갈등을 조정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돕는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 전남교육청 선정

조달사업 이용 실적 · 나라장터 활용 높아



광주조달청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트로피를 전달하고 유공직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광주조달청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트로피를 전달하고 유공직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은 조달청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사업 이용실적과 전년 대비 신장률, 나라장터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선정한다.

박종배 기자

북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15억 투입...83명에 4차산업 분야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등 총 사업비 15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청년에게 제공해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일자리 사업은 ▲광융합·생체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2023 창업청년 성장UP 고용PLUS 지원 ▲산업단지 SMART 전문인력 지원 사업 ▲첨단 북구 디지털뉴딜 일자리 프로젝트 ▲광융합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젝트 등 총 6개다.

주성조 기자

늘봄학교 200개교 운영...“2년뒤 전국화”

“내년 7~8개 시도, 2025년에 전국 확대 목표”

돌봄유형 다양화...오전 7시 아침·오후 8시 저녁

올해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4개 시·도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요가 많으나 교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은 다 학교 등 거점시설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은 시도 교육청이 그대로 가져가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않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중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정규 수업 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무상이나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부모들

이 수강료를 낸다. 이달 중 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지정한다. 역량이 있는 20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내년 시범 운영 지역을 7~8개 시도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전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등학교는 6163개교다. 교육부는 우선 3% 내외의 학교에서 성공적 모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의미는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학교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초1 신입생을 위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를 집중 제공한다. 초1

1학기에도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 교육을 마련한다.

초1 신입생은 입학 후 3주 동안 적응 기간을 갖는데, 점심을 먹고 바로 학교하므로 오후 1~2시 정규 수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초1은 학교 안에서 교실을 찾아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급급적 수업을 듣는 교실이나 같은 신입생끼리 모임을 꾸려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 지역에서는 필요할 때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을 늘린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아침돌봄,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 방과 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을 활용한 틈새 돌봄 등을 제공한다. /뉴스

'설 대목' 양동시장,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양동전통시장 내 양동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수산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干货류 판매점포 등 187개 업소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장 방문객들은 행사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구비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동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기간동안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지류형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서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심상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주민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설 명절 시민 생활 종합대책 추진...안전·방역 중점

이달 10~24일까지 8개 분야 23개 세부 계획 수립

동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1.21~24)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생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설 명절 시민 생활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 ▲안전 사고 예방 ▲지역 물가 관리 ▲교통 질서 유지 ▲복지시설 위문 ▲응급

조치 확립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분야 23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설 명절 기간동안 각종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 교통, 청소, 의료, 재난·재해 등 8개 분야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발 해외 유입자 급증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특별방역 점검은 물론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 등 24시간 감병병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 혼잡지역 특별단속, 돌봄 이웃 및 보호시설 위문,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보건소 기동진료반 편성 및 병원 응급진료 안내센터 운영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 강화를 통해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순천 도심 한가운데 날아든 '노랑부리저어새' 눈길

멸종위기종의 도심 먹이활동으로 생태 건강성 인정



순천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도심에서도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노랑부리저어새가 관찰된 곳은 도심 정원의 랜드마크 '오전그린광장'으로 50여 마리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순천에는 한해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순천만이 있다. 하지만 희귀조류인 노랑부리저어새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심까지 찾아 든 것은 드문 일이다.

시는 노랑부리저어새의 도심 먹이 활동을 순천만의 생태 건강성이 도심까지 확장됐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우리가 찾지 않아도 새들은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정원박람회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과 함께 세계적인 생태모형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오전그린광장을 새들의 먹이활동이 용이하도록 수심을 낮추고 모래톱을 조성하는 등 우수한 생태조건을 갖춘 생태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